

이병주 문학의 역사의식 고찰

- 장편소설 『관부연락선』을 중심으로

김 중 회*

차 례

1. 서론
2. 역사의식의 경향과 그 의미
3. 작품세계의 전개와 문학적 의미
4. 『관부연락선』의 근대사적 지위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작가 이병주의 소설과 그 역사의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경향과 의미가 어떠한가를 검토한 다음, 이를 전체적인 문맥 아래에서 조감할 수 있도록 그의 작품세계 전반의 전개와 문학적 인식의 방식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대표적 장편소설이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장편소설들의 출발을 예고하는 첫 작품 『관부연락선』을 중심으로 그 역사의식의 발현과 성격적 특성을 점검해 보았다.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 이병주의 소설에 나타난 역사의식은 우리 문학사에 보기 드문 강렬한 체험과 그것의 정수를

* 경희대 국문과 교수

이야기화하고, 그 배면에 잠복해 있는 역사적 성격에 대해 이를 수용자와의 친화를 강화하며 풀어내는 장점을 발양했다.

주지하는 바 역사 소재의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소설적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이병주의 소설과 그 역사의식은, 한국 근대사의 극적인 시기들과 그 이야기화에 재능을 가진 작가의 조합이 생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병주의 문학관, 소설관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중심에 두는 신화문학론의 바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가 그 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의 아픔과 슬픔을 진정성 있게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그 역사의 성긴 그물망이 놓친 삶의 진실을 소설적 이야기로 재구성한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한 역사의식의 기록이자 성과물로서, 한국 문학사에 돌올한 외양을 보이는 『관부연락선』 『산하』 『지리산』 등의 장편소설을 목격하게 된다.

주제어 : 이병주, 문학, 역사의식, 상상력, 한일관계사

1. 서론

작가 이병주는 1921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하여 일본 메이지대학 문예과와 와세다대학 불문과에서 수학했으며, 진주농과대학과 해인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부산 국제신보 주필 겸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1992년에 타계했으나 유명을 달리한 지 19년이 지났다.

마흔네 살의 늦깎이 작가로 출발하여 한 달 평균 200자 원고지 1천매, 총 10만여 매의 원고에 단행본 80여 권의 작품을 남긴 이병주 문학은, 그 분량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대중 친화력을 촉발했다. 그와 같은 대

중적 수용은 한 시기의 '정신적 대부'로 불리는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 작가를 그 시대에 있어서 보기 드문 면모를 가진 인물로 부상시키는 추동력이 되었다.

이상에서 거론한 이력이 그가 40대에 작가로 입문한 이후 걸음으로 드러난 주요한 삶의 행적이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인생유전은 결코 한두 마디의 언사로 가볍게 정의할 수 없는 험난한 근대사의 굴곡과 함께 했다. 기실 이 기간이야말로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공간을 거쳐,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및 체제 대립과 6·25동란 그리고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 등, 온갖 파란만장한 역사 과정이 융기하고 침몰하던 격동기였다. 것처럼 극적인 시기를 관통하며 지나오면서, 한 사람의 지식인이 이렇다 할 상처 없이 살아남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의 삶은 몇 편의 장편소설로 씌어질 만한 것인데, 그러한 객관적 정황 속에서 글쓰기의 능력을 발동하여 그는 우리 근대사에 기반을 둔 역사 소재의 소설들을 썼다. 그런 만큼 이러한 성향으로 그가 쓴 소설들은 상당 부분 자전적인 체험과 세계인식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관부연락선』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만하다.

이병주에 대한 연구는, 이 작가의 작품이 높은 대중적 수용도를 보인 바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사후 10년이 되던 2002년부터 기념사업이 시작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이고 국제적인 기념사업회가 발족¹⁾한 이래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간의 연구 성과는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작가 연구, 장편소설 『지리산』 연구, 작품 연구 등이 그 항목이다. 작가 연구는 이병주의 작품 세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말하며, 『지리산』 연구는 대표작 『지리

1) 이병주기념사업회는 김윤식·정구영을 공동대표로 2007년에 발족하여 전집 발간,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개최, 이병주국제문학상 시상, 이병주문학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작품 연구는 여러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말한다.

작가 연구에 있어서는 작품의 역사성과 시대성, 사회의식 및 학병 세대의 세계관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대표적 연구로는 이보영²⁾, 송재영³⁾, 이광훈⁴⁾, 김윤식⁵⁾, 김종희⁶⁾, 송하섭⁷⁾, 강심호⁸⁾, 이형기⁹⁾ 등의 글이 주목할 만하다. 이 글들은 이병주의 세계를 총체적 시각으로 살펴 보면서, 그것의 통합적 의미를 추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리산』 연구에 있어서는, 대표작 『지리산』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임현영¹⁰⁾, 정호웅¹¹⁾, 정찬영¹²⁾, 김복순¹³⁾, 이동재¹⁴⁾ 등의 글이 주목할 만하다. 이 글들은 『지리산』이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상충을 배경으

- 2) 이보영, 『역사적 상황과 윤리-이병주론』, 『현대문학』, 1977. 2-3쪽.
- 3) 송재영, 『이병주론-시대증언의 문학』, 『현대문학의 옹호』, 문학과지성사, 1979.
- 4) 이광훈, 『역사와 기록과 문학과...』, 『한국현대문학전집 48』, 삼성출판사, 1979.
- 5) 김윤식, 『작가 이병주의 작품세계-자유주의 지식인의 사상적 흐름을 대변한 거인 이병주를 애도하며』, 『문학사상』, 1992. 5.
_____, 『위신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열정’으로 이른 과정-이병주 문학 3부작론, 『2007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이병주기념사업회, 2007.
- 6) 김종희, 『근대사의 격랑을 읽는 문학의 시각』, 『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 7) 송하섭, 『사회 의식의 소설적 반영-이병주론』, 『허구의 양상』,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 8) 강심호, 『이병주 소설 연구-학병세대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관학어문연구』 제27집, 2002.
- 9) 이형기, 『지각 작가의 다섯 가지 기동-이병주의 문학』, 『나림 이병주선생 10주기기념 추모선집』, 나림이병주선생기념사업회, 2002.
- 10) 임현영, 『현대소설과 이념문제-이병주의 『지리산』론』, 『민족의 상황과 문학사상』, 한길사, 1986.
- 11) 정호웅, 『지리산론』, 문학과비평연구회 편,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4.
- 12) 정찬영,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지리산』론』, 문창어문학회, 『문창어문논집』 제36집, 1996. 12.
- 13) 김복순, 『‘지식인 빨치산’ 계보와 『지리산』』, 명지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집』 제22호, 2000. 12.
- 14) 이동재, 『분단시대의 휴머니즘과 문학론-이병주의 『지리산』』,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24호, 2004. 12.

로 당대를 살았던 끈고한 젊은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과, 지리산으로 들어가 파르티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정황을 소설적 이야기와 함께 추적하고 있다.

작품 연구에 있어서는, 무려 80여권에 달하는 이 작가의 방대한 세계 중에서도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다룬 것으로 김주연¹⁵⁾, 이형기¹⁶⁾, 김외곤¹⁷⁾, 김병로¹⁸⁾, 이재선¹⁹⁾, 김종회²⁰⁾, 이재복²¹⁾, 김인환²²⁾, 이광훈²³⁾, 임현영²⁴⁾, 정호웅²⁵⁾, 조남현²⁶⁾, 김윤식²⁷⁾ 등의 글이 주목할 만하다. 이 글들은 단편에서 장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적 관심을 유발한 작품들을 분석·비평하고 있으며 그 각기의 소설적 가치를 추출하고 검증해 보인다.

이병주의 작품 세계가 광활한 형상으로 펼쳐져 있는 만큼, 작가 작품

-
- 15) 김주연, 『역사와 문학-이병주의 「변명」이 뜻하는 것』, 『문학과지성』 제11호, 1973년 봄호.
 - 16) 이형기, 『이병주론-소설 『관부연락선』과 40년대 현대사의 재조명』, 권영민 엮음, 『한국현대작가 연구』, 문학사상사, 1991.
 - 17) 김외곤, 『격동기 지식인의 초상-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소설과사상』, 1995. 9.
 - 18) 김병로, 『다성적 서사담론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의 확장성 연구-이병주의 「소설 ·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제36집, 1996. 5.
 - 19) 이재선, 『이병주의 「소설 · 알렉산드리아」와 「겨울밤」』,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6.
 - 20) 김종회, 『한 운명론자의 두 얼굴-이병주의 소설 「소설 · 알렉산드리아」에 대하여』, 나림이병주선생 12주기 추모식 및 문학강연회 강연, 2004. 4. 30.
 - 21) 이재복, 『달레탕티즘의 유희로서의 문학-이병주의 중 ·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나림이병주선생 13주기 추모식 및 문학강연회 강연, 2005.
 - 22) 김인환, 『천재들의 함창』,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한길사, 2006.
 - 23) 이광훈, 『행간에 묻힌 해방공간의 조명』, 『산하』, 한길사, 2006.
 - 24) 임현영, 『기전체 수법으로 접근한 박정희 정권 18년사』, 『그해 5월』, 한길사, 2006.
 - 25) 정호웅, 『망명의 사상』, 『미술사』, 한길사, 2006.
 - 26) 조남현, 『이데올로그 비판과 담론 확대 그리고 주체성』, 『소설 · 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6.
 - 27) 김윤식, 『이병주의 처녀작 『내일 없는 그날』과 데뷔작 「소설 ·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제기』, 『한국문학』, 2007년 봄호.

론도 큰 부피의 형식적 구분만 가능할 뿐 일정한 유형에 따라 조직적인 전개를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기서 서술하려는 ‘역사의식’의 성격에 관해서는, 연구사에 있어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동안 그의 작품이 가진 역사성과 그것의 소설적 담론화에 대한 주목이 중심을 이루어온 데 비추어 이를 근본적 의식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효용성을 가진다고 보며, 그런 점에서 ‘역사의식’의 본질과 성격을 구명하는 일이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작가 이병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의 소설문학에 나타난 역사의식의 성격을 고찰하고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세계의 전개와 그 경향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본 다음, 특히 장편소설 『관부연락선』²⁸⁾을 중심으로 그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실제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비평문 『근대사의 격랑을 읽는 문학의 시각』(『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을 바탕으로 다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2. 역사의식의 경향과 그 의미

이병주의 데뷔작 『소설·알렉산드리아』를 읽고 그 독특한 세계와 문학성에 놀란 여러 사람의 글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 그 작품을 다시 읽어 보아도 한 작가에게서 그만한 재능과 역량이 발견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겠다는 독후감을 얻을 수 있다.

산뜻하면서도 품위 있게 진행되는 이야기의 구조, 낯선 이국적 정서를

28) 이병주의 장편소설 『관부연락선』은 1972년 신구문화사에서 간행되었으나, 여기에서는 2006년 한길사에서 발간된 『이병주 전집』 전 30권 중 『관부연락선』 (2권)을 저본으로 한다.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해하는 힘, 부분부분의 단락들이 전체적인 일개와 잘 조화되면서도 수미 상관하게 정리되는 마무리 기법 등이 이 한 편의 소설에 편만(遍滿)하게 채워져 있었다면, 작가로서는 아직 무명인 그의 이름을 접한 이들이 놀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작가는 자신의 문학적 초상에 관해 서술한 글에서, 이 작품을 두고 ‘소설의 정형’을 벗어난 것이지만 그로써 소설가로서의 자신이 가진 자질을 가능할 수 있었다고 적었는데, 미상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표된 『마술사』, 『예낭 풍물지』, 『췌 부채』 등에서는 소설적 정형을 온전히 갖추면서도 오히려 그것의 고정성을 넘어서는 창작의 방식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초기의 작품들에는 문약한 골격에 정신의 부피는 방대한 문학 청년이 등장하며, 거의 모든 작품에 ‘감옥 콤플렉스’가 나타난다. 이는 작가의 현실 체험이 반영된 한 범례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그의 소설 구성에 있어 하나의 원형이 된다.²⁹⁾

이 초기의 단편에서 장편으로 넘어가는 그 마루턱에서 작가는 『관부연락선』을 썼다. 일제 말기의 5년과 해방공간의 5년을 소설의 무대로 하고 거기에 숨은 뒷그림으로 한 세기에 걸친 한일관계의 긴장을 도입했으며, 무엇보다도 일제 하의 일본 유학과 학병 동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교유관계 등 작가 자신이 걸어온 꺾어진 삶의 족적을 함께 서술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그 이후 더욱 확대되어 전개될 역사 소재 장편소설들의 외형을 예고하는 이정표가 된다. 『산하』와 『지리산』 같은 대하장편들이 그 나름의 확고한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관부연락선』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실과 문학의 예술성을 표방하는 미학적 가치가 서로 씨줄과 날줄이 되어 교직될 수 있었기 때문이

29) 김종희, 『근대사의 격랑을 읽는 문학의 시각』, 『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216쪽.

다. 이 소설적 판짜기의 구조를 통하여, 그는 역사를 보는 문학의 시각과 문학 속에 변용된 역사의 의미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역사와 문학의 상관성에 대한 그의 통찰은 남다른 데가 있어, 역사의 그물로 포획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문학이 표현한다는 확고한 시각을 정립해 놓았다. 표면상의 기록으로 나타난 사실과 통계수치로서는 시대적 삶이 노정한 질곡과 그 가운데 개재해 있는 실제적 체험의 구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남겨 놓은 이와 같은 값있는 작품들과 문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당대 문단에서 그에 대한 인정이 적잖이 인색했으며 또한 그의 작품세계를 정석적인 논의로 평가해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물론 거기에는 그것대로의 원인이 있다.

그가 활발하게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역사 소재의 소설들과는 다른 맥락으로 현대사회의 애정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또 하나의 중심 축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발생한 부정적 작용이 결국은 다른 부분의 납득할 만한 성과마저 중화시켜 버리는 현상을 나타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나치게 대중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문학작품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양식의 수위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유발하면서, 순수문학에의 지구력 및 자기 절제를 방기하는 사태에 이른 경향이 약여(躍如)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그 예증으로 열거할 만한 작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제하여 놓고 살펴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그에게 부여되었던 ‘한국의 발자크’라는 별칭이 결코 허명이 아니었음을 수긍할 수 있다. 일찍이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던 시절,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나폴레옹 앞엔 알프스가 있고, 내 앞엔 발자크가 있다”라고 써 붙여 두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 오연한 기개는 나중에 극적인 재미와 박진감 있는 이야기의 구성, 등장인물의 생동력과 장대한 스케일, 그리고 그의 소설 처처에서 드러나는 세계 해석의 논리와 사상성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는 우리 문학사가 배태한 유별난 면모의 작가였으며, 일찍이 로브그리에가 토로한 바 “소설을 쓴다고 하는 행위는 문학사가 포용하고 있는 초상화 전시장에 몇 개의 새로운 초상을 부가하는 것이다”³⁰⁾라는 명제의 수사에 부합하는 작가라 할 수 있다.

3. 작품세계의 전개와 문학적 의의

이병주의 첫 작품은 대체로 1965년에 발표된 『소설·알렉산드리아』로 알려져 있다. 작가 자신도 이 작품을 데뷔작으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첫 작품은 1954년 『부산일보』에 연재되었던 『내일 없는 그날』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내면에 품어왔던 작가로서의 길이 합당한지를 시험해본 것 같다. 물론 그 시험에 대한 자평이 어떤 결과였든지간에, 그 이후의 작품활동 전개로 보아 그의 내부에서 불붙기 시작한 문학에의 열망을 진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참으로 많은 분량의 작품을 썼다. 문학창작을 기업경영의 차원으로 확장한 마쓰모토 세이쥬 같은 작가와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작가 가운데서 그에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는다면 아마도 이병주가 아닐까 싶다.

그런 만큼 그의 소설이 보여주는 주제의식도 그야말로 백화난만한 화원처럼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예낭 풍물지』나 『철학적 살인』 같은 창작집에 수록되어 있는 초기 작품의 지적 실험성이 짙은 분위기와 관념적 탐색의 정신,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대성과 역사 소재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숨겨진 사실들의 진정성에 대한 추적과 문학적 변용, 현대사회 속에서의 다기한 삶의 절목들과 그에 대한 구체적 세부의 형

30) 누보로망의 작가 로브그리에의 이 표현은 생동하는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병주 소설의 인물 분석에 매우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력 부가 등속을 금방이라도 나열할 수 있다.

이병주는 분량이 크지 않은 작품을 정교한 짜임새로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작가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인식되기로는 부피가 큰 대하소설을 유연하게 펼쳐나가는 데 탁월한 작가라는 점이다. 일찍이 그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그 마력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한 것도 이 점에 견주어 볼 때 자못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한다.

『산하』 『행복어사전』 『바람과 구름과 비』 『지리산』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에 속하는 작품들인데, 이는 단순히 작품의 분량이 크다는 외형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시대적·역사적 현실과 그것에 총체적인 형상력을 부여할 때 얻어지는 사상성이나 철학적 개안의 차원에까지 이른 면모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은 어느 모로 보나 이병주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남북간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집단생활을 한 좌익 파르티잔의 특이한 성격을 조명한 소설의 내용에서도 그러하고, 모두 7권의 분량에 달하여 실록 대하소설이라 규정되고 있는 소설의 규모에서도 그러하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 작가가 특별한 애정을 갖고 그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박태영이나 하준규 같은 인물, 그리고 해설자인 이규 같은 인물은 일제 말기의 학병과 연관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치욕스런 신상’과 한반도의 견잡을 수 없는 풍운이 마주쳤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떤 궤적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이병주의 역사소재 소설들을 통틀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요체는 『지리산』에서의 이규와 같은 해설자의 존재이다. 그 해설자는 이름만 바꾸었다 뿐이지 다른 작품들에서도 거의 유사한 존재 양식을 갖고 나타난다. 예컨대 『관부연락선』에서 이군 또는 이선생으로 불리는 인물, 『산하』에서 이동식으로 불리는 인물,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월부채』 같은 초기 작품에 나오는 대학생 동식이라는 인물도 모두 본질이 동일

한 ‘이선생’이다.

작가는 이 해설자에게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시각을 투영했으며, 그런 만큼 그 해설자의 작중 지위는 작가의 전기적 행적과 상당히 일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에 그 해설자가 불학무식이거나 당대의 한반도 현실에 대해 사상적이며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면, 작가는 애초부터 스스로의 심중에 맺혀서 울혈이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불학무식한 부역자를 주인공으로 한 조정래의 『불놀이』와 좌파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한 같은 작가의 『태백산맥』이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면서도 역사와 현실을 읽는 시각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여기에 좋은 보기가 된다.

이병주가 너무 많은 작품을 간단없이 제작해낸 관계로 곳곳에 비슷한 정황이 중첩되거나 중·단편의 내용이 장편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는 양상도 적잖이 발견된다. 이러한 측면은 정작 한 사람의 작가로서 그를 아끼고 그와 더불어 가능할 수도 있었던 한국의 ‘발자크적 신화’를 아쉬워하는 이들에게 만만치 않은 결핍감을 남긴다.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라는 작품을 보면 노 독립투사 정람 선생에게서 작가 이 선생이 ‘재능의 낭비가 아닌가’라고 회의하는 대목이 나온다. 정람이 동서고금을 섭렵하는 박람강기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꿈, 사자,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수준 이상의 박식을 피력하자 그러한 감상을 내보이는 것인데,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작가 자신을 두고 그러한 인식을 가질지 모른다는 역발상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다.

하나의 가설로 그가 보다 미학적 가치와 사회사적 의의를 갖는 주제를 택하여 힘을 분산하지 아니하고 집중했다라면, 뛰어난 문필력과 비슷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적인 체험들으로써, 그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언급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같은 웅장한 작품을 생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의 지식인이 피치 못하게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태, 광란의 역사와 어떻게 맞서야 했는가라는 사실을 두고 이의 소설화를 언급할 때 이 작가를 건너뛰기는 어렵다. 그에게는 그 제재가 일종의 강박이었고, 이를 제대로 설명해 보기 위하여 1972년부터 근 15년에 걸쳐 그의 대표작 『지리산』을 썼으며, 그보다 한 단계 앞선 시대를 배경으로 그의 장편시대 개화를 예고하는 문제작 『관부연락선』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지리산』이 그러한 것처럼 『관부연락선』 또한 ‘거대한 좌절의 기록’이다. 유태림이라고 하는 한 전형적 인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공간에 걸쳐 살았던 당대 젊은 지식인의 전형성을 갖는 그 인물만의 좌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바 이성적인 사유체계를 가진 젊은 지식인 일반과 그 배경에 있는 우리 민족 전체의 좌절을 기록한 것이다.

4. 『관부연락선』의 근대사적 지위

장편소설 『관부연락선』의 시간적 무대는 1945년 해방을 전후한 5년간, 도합 10년 간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과장이 확장한 내포적 공간은 한 일관계사 전반을 조망하는 1백여 년 간에 걸쳐져 있다. 작가는 이 넓은 공간적 환경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 시각으로 조망하는 글쓰기를 수행한다.

증학교의 역사책에 보면 의병을 기록한 부분은 두세 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두세 줄의 행간에 수만 명의 고통과 임리한 피가 응결되어 있는 것이다.

『관부연락선』의 주인공 유태림이 의병대장 이인영의 기록을 읽으며 역사의 무게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대목이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정신, 역사의 행간을 생동하는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 삶과 피로 매우 짙다는 정신으로 이 소설을 썼다. 그것은 곧 그만이 독특하게 표식으로 내세운 역사와 문학의 상관관계이기도 하다.³¹⁾

이 소설은 동경 유학생 시절에 유태림이 관부연락선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직접 작성한 기록과, 해방공간에서 교사생활을 함께 한 해설자 이선생이 유태림의 삶을 관찰한 기록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기록이 교차하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의 장이 이선생인 ‘나’의 기록이면 다음 장은 유태림인 ‘나’의 기록으로 되는 것이다.

유태림의 조사를 통해 관부연락선의 상징적 의미는 물론 중세 이래 한일 양국의 관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선생의 회고를 통해 유태림의 가계와 고향에서의 교직생활을 포함하여 만주에서 학병생활을 하던 지점에까지 관찰이 확장되기도 한다.

때에 따라 관찰자인 이선생의 시점이 관찰자의 수준을 넘어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과도히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유태림에게서 들은 얘기를 종합했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실상은 유태림 자신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자주 목격된다. 또한 이야기의 내용에 있어서도 진행되는 사건은 허구인데 이에 주를 달고 그 주의 문면은 실제 그대로여서 소설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대목도 있다.

이는 이 소설의 대부분이 작가 자신의 사고요 자전적 기록인 까닭으로, 사실과 허구에 대한 구분 자체가 모호해져 버린 결과로 보이며, 작가는 소설의 전체적인 메시지 외의 그러한 구체적 세부를 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유추되기도 한다.

작가가 시종일관 이 소설을 통해 추구한 중심적인 메시지는, 그 자신이 소설의 본문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당시의 답답한 정세 속에서 가능한 한 양심적이며 학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 진지한 한국 청년의 모습”이다. 능력과 의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도 못하고

31) 김종희, 앞의 글, 219쪽.

저렇게도 못 하기로는 유태림이나 우익의 이광열, 좌익의 박창학이 모두 마찬가지였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공간의 좌우익 갈등 속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옳았으며, 신탁통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으며, 좌우익 양쪽 모두의 권력에서 적대시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옳았겠는가를 질문하는 셈인데, 거기에 이론 없이 적절한 답변은 주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작가는 다만 이를 당대 젊은 지식인들의 비극적인 삶의 마감-유태림의 실종 및 다른 인물들의 죽음을 통해 제시할 뿐이다.

이는 곧 “한국의 지식인이 그 당시 그렇게 살려고 애썼을 경우,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 있지 않는 한 거개 유태림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 “유태림의 비극은 6·25동란에 휩쓸려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과 통분(通分)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은 식민지 청년의 하나의 유형”이라는 기술은 곧 상황논리의 물결에 불가항력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인식과 소통된다.

유태림이 동경 유학 시절에 열심을 내었던 관부연락선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 상황논리의 발생론적 구조에 대한 탐색이었으며, 제국주의 통치국과 식민지 피지배국을 잇는 연락선이 그것을 극명하게 상징하고 있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 놓여 있다 할 것이다.

작품 속의 유태림은 관부연락선을 도버와 칼레 간의 배, 즉 사우샘프턴과 르아브르 간의 배에 비할 때 영락없는 수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적으면서도, 이를 맹목적 국수주의의 차원으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그 중 80%는 조선의 책임이라고 수궁한다. 이는 을사보호조약에서 한일합방에 이르는 역사 과정에 있어서 민족적 과오의 반성을 그 사실(史實)과 병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관점의 정립과 더불어 작가는 매우 비판적이고 분

석적인 어조로 당대의 특히 좌익 이데올로기의 허실을 다루어 나간다. 아마도 이 분야에 관한 한 논의의 전문성이나 구체성에 있어 우리 문학에 이병주만한 작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여순반란사건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시련”이라는 언술이 있는데, 이와 같은 수사는 여간한 확신과 논리적인 자기 정리 없이는 쓸 수 없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만일 그런 반란사건이 없었고 그러한 반란분자들이 정체를 감춘 채 국군 속에 끼어 그 세위를 확장해 가고 있었다면, 6·25동란 중에 국군 가운데서의 반란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드러난다.

동시에 그는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성립이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고 변호한다. 여기에서도 그럴 만한 이성적인 논리를 앞세워 이를 설명한다. 이 험난한 이데올로기 문제에 이만한 토론의 수준을 마련한 작가가 우리 문학에서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보수우익의 기득권 보호의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는 소설을 통해 심도 있는 정치토론을 유발한 유일한 작가이다.

그러기에 그가 계속해서 내보이는 여운형, 이승만, 김구 등 당대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물평에는 우리 시대의 정치사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 특히 그는 여운형의 암살사건에 대하여, “몽양의 좌절은 이 나라 지식인의 좌절이며 몽양과 더불어 상정해 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말살”이라고 개탄했다.

이 모든 혼돈하는 세대 속에서 유태립과 그의 동료들은, 역사의 파도가 높고 험한 만큼 가혹한 운명적 시련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유태립이 실종되기 전에, 그가 좌익 기관에도 잡히고 대한민국 검찰에도 걸려 들고 한 사실 자체에 적잖은 충격을 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실로 당대의 젊은 지식인들이 회피할 수 없었던 구조적 질곡을 실감 있게 드러낸다. 이 소설의 마지막, 『유태립의 수기(5)』³²⁾ 끝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운명…… 그 이름 아래서만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소설들에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토론은 종결이라고 하던 작가가 유태림의 비극을 운명의 이름으로 결론지었을 때, 거기에는 역사의 격랑에 부서진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조상이 함유되어 있다. 곧 운명의 작용을 인식하고서 비로소 그 비극의 답안을 발견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가는 1972년 신구문화사에서 상재된 『관부연락선』의 『작자 부기』에서 “소설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관부연락선』은 다시 달리 씌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적었고, 송지영 씨가 『발문』에서 “어떠한 ‘소설 관부연락선’ 도 그 규모에 있어서 그 내용의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이처럼 감동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반론했다. 소설의 순문학적 형틀이 완숙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작가의 말은 틀리지 않으며, 소설 전체의 박진감과 감동에 있어서 송지영 씨의 표현 또한 틀리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는 너무도 많은 유태림이 있으며 그들의 아픔과 비극이 오늘 우리 삶의 뿌리에 연접해 있다. 이 사실을 구체적 실상으로 확인하게 해준 것은, 작가 이병주가 가진 균형성 있는 역사의식의 결과이다. 그것은 또한 이미 30여 년 전에 소설의 얼굴로 등장한 이 역사적 격랑의 기록을, 시대적 성격을 가진 소설문학의 수범 사례로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작가 이병주의 소설과 그 역사의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

32) 이병주, 『관부연락선』 2, 한길사, 2006, 366쪽.

배태되었으며 그 경향과 의미가 어떠한가를 검토한 다음, 이를 전체적인 문맥 아래에서 조감할 수 있도록 그의 작품세계 전반의 전개와 문학적 인식의 방식 및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대표적 장편소설이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장편소설들의 출발을 예고하는 첫 작품 『관부연락선』을 중심으로 그 역사의식의 발현과 성격적 특성을 점검해 보았다.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 이병주의 소설에 나타난 역사의식은 우리 문학사에 보기 드문 체험과 그것의 정수를 이야기화하고, 그 배면에 잠복해 있는 역사적 성격에 대해 이를 수용자와의 친화를 강화하며 풀어내는 장점을 발양했다.

주지하는 바 역사 소재의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소설적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이병주의 소설과 그 역사의식은, 한국 근대사의 극적인 시기들과 그 이야기화에 재능을 가진 작가의 조합이 생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병주의 문학관, 소설관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중심에 두는 신화문학론의 바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기록된 사실로서의 역사가 그 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의 아픔과 슬픔을 진정성 있게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그 역사의 성긴 그물망이 놓친 삶의 진실을 소설적 이야기로 재구성한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한 역사의식의 기록이자 성과로서, 한국문학사에 돌올한 외양을 보이는 『관부연락선』 『산하』 『지리산』 등의 장편소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소설이 작가의 상상력을 배경으로 한 허구의 산물이므로 실제적인 시대 및 사회의 구체성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학을 통한 인간의 내면 고찰이나 문학이 지향하는 정신적인 삶의 중요성, 그것이 외형적인 행위 규범을 넘어 발휘하는 전파력을 고려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한 작가를 그 시대의 교사로 치부하고, 또 그의 문학을 시대정신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풍향계로 내세울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정신적 활력을 가진 공동체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작가 이병주의 소설과 그의 작품에 나타난 삶의 실체적 진실로서의 역사의식이 우리 사회의 한 인식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오늘처럼 개별화되고 분산된 성격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김주연, 「역사와 문학-이병주의 '변명'이 뜻하는 것」, 『문학과지성』, 1973 봄호.
- 남재희, 「소설 『지리산』에 나타나는 지식인의 상황분석」, 『세대』, 1974. 5.
- 이보영, 「역사적 상황과 윤리-이병주론」, 『현대문학』, 1977. 2~3.
- 이광훈, 「역사와 기록과 문학과…」, 『한국현대문학전집 48』, 삼성출판사, 1979.
- 김영화, 「이념과 현실의 거리-분단상황과 문학」, 『한국현대시인작가론』, 1987.
- 이형기, 「40년대 현대사의 재조명」,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 8』, 중앙일보사, 1987.
- 임종국, 「현해탄의 역사적 의미」, 위의 책.
- 임현영, 「이병주의 작품세계」, 『한국문학전집 29』, 삼성당, 1988.
- 임금복, 「불신시대에서의 비극적 유토피아의 상상력-『빨치산』, 『남부군』, 『태백산맥』」, 『비평문학』, 1989. 8.
- 김중희, 「근대사의 격랑을 읽는 문학의 시각」, 『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 김윤식, 「작가 이병주의 작품세계」, 『나림 이병주선생 10주기 기념 추모선집』, 나림이병주선생기념사업회, 2002.
- 이형기, 「지각작가의 다섯가지 기동-이병주의 문학」, 위의 책.
- 김중희, 「한 운명론자의 두 얼굴-이병주의 소설 『소설 알렉산드리아』에 대하여」, 나림 이병주 선생 12주기 추모식 및 문학강연회 강연, 2004. 4. 30.
- 임현영, 「이병주의 『지리산』론-현대소설과 이념문제」, 위의 문학강연.
- 정호웅, 「이병주의 『관부연락선』과 부성의 서사」, 위의 문학강연.
- 김윤식, 「학병세대의 글쓰기-이병주의 경우」, 나림 이병주선생 13주기

추모식 및 문학강연회 강연, 2005. 4. 7.

김종희, 『문화산업 시대의 이병주 문학』, 위의 문학강연.

이재복, 『딜레탕티즘의 유희로서의 문학-이병주의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위의 문학강연.

<Abstract>

The Historical Awareness in Lee Byung-Joo's Literature

Kim, Jong-Hoi

This essay will shed a light on the route of Lee Byung-Joo's historical awareness and the meaning of its trend and purpose. It will also look at these issues within the context. In order to do so, this essay must also take a look at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author's works along with the method and pattern of literary cognition. Focusing on [The Ferryboat] which is the most well-known fiction for this kind of historical recognition, and also the first one to announce the arrival of similar type of other fictions, this essay will inspect manifest of the historical awareness and characteristic quality.

As discussed, the historical awareness shown in Lee Byung-Joo's fiction narrates intense experience that is rare in our literature, and makes a story out of its essential spirit. In terms of historical character that is hidden in the base, his fiction reinforces the intimacy between this fact and the receiver.

A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historical fiction is based on the real historical events and adding fictional stories within author's imagination. For this, Lee Byung-Joo's fiction and his historical awareness is the result of the mixture between the dramatic time period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author's talent of making it to be a story.

Lee Byung-Joo's literary and fictional view basically starts from mythological literature that is focused on 'imagination.' Because that recorded history cannot genuinely show all of the pain and sorrow of real people who actually lived in that era, the author's view represents his intention of reconstructing the reality of human life into a fiction. As the outcome, readers witness fictions like [The Ferry boat][Mountain and River] [Mt. Giri] that are unique and special in Korean literary history.

Key Words : Lee Byung-Joo, literature, historical awareness,
imagination, history of relation between Korea-Japan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3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